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윤창 · 이미경 · 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남자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한국판 자극추구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조사에 앞서 남자고교생 46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18문항의 단축형 자극추구척도를 제작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서울시내 인문계 및 실업계 주·야간 고등학교 학생 255명(평균연령 16.6세)에게 자극추구척도와 비행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극추구의 하위척도 중 드릴/모험추구행동을 제외한 경험추구행동, 금지해제, 그리고 권태민감성은 비행의 거의 모든 유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이 세 변인은 공격행동, 규칙위반, 절도, 파손행동 그리고 약물남용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행동들을 자극추구동기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비행을 설명하는 단일구인으로서의 자극추구동기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소년범의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의 청소년지표, 1994). 즉,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생인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범죄보유율(prevalence rate)과 발생비율(incidence rate)은 청소년 연령층에서 가장 높으며(Moffitt, 1993), 전체 검거자 수는 17세에 정점을 이루다가 초기 성인기에 급격히 하락함을 볼 수 있다(Blumstein과 Cohen, 1987).

Patterson, DeBarshe와 Ramsey(1989)는 비행에는 두가지 다른 발달경로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청소년기 이전에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early starter)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late starter)는 그 비행의 경로가 달라서 같은 모델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중 만성적인 범죄자가 되기 쉬운 유형은 이른 시작자이며, 두 경로를 구분할 수 있는 연령은 대략 15세 인 것으로 밝혀졌다(Patterson, Capaldi와 Bank, 1991).

Stattin과 Magnusson(1991)은 709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14세 이하, 15세~20세, 20세~29세의 세가지 연령대 중 한 개인이 범죄에 가담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조사하여 총 8가지 유형(범죄자-범죄자-범죄자 ~ 비범죄자-비범죄자-비범죄자)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범죄자-비범죄자-비범죄자의 유형이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으나, 비범죄자-범죄자-비범죄자의 유형 즉, 청소년기에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두번째로 많은 11.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만성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인 아동기 때부터 비행해 온 경우는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점은 성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고, 그것을 훌륭히 수행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달단계이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보통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실험적으로 수행하지만 이러한 실험적 수행은 전통적인 사회와 마찰을 일으켜 문제행동이 되기도 한다. 마치 일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청소년기에 급증하게 되는 비행은 청소년기라는 발달적인 전환시기에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인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문제행동을 “사회적으로 문제로 정의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제를 야기시키는 행동”(Jessor 와 Jessor, 1977)이라고 말한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유형은 약물사용, 음주, 흡연, 조숙한 성행동, 공격성, 절도, 규칙위반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문제행동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들은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단일 잠재구인에 의한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Donovan 과 Jessor, 1985; Jessor 와 Jessor, 1977). 만일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하나의 심리학적 구인에 의해 생성된다면, 문제행동들은 일반적인 양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구인을 밝혀낸다면 청소년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행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가 전생애 발달단계(life-span development) 속의 하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생애에 걸친 발달상의 변화와 비행과의 관계를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비행이 15세~17세사이에서 정점을 이룬다는 선행 외국의 연구들은 이와 유사한 변화패턴을 보이는 자극추구동기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자극추구행동(sensation seeking behavior)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Wundt(1873)에서 시작된다. Wundt는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곡선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구인으로써 적정자극수준(Optimal level of stimulation)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80여년이 지난 후, 여러 연구자들은 이를 다시 적정각성수준(Optimal level of arousal)으로 대체시켰다. 이는 인간이 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정수준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Zuckerman은 이러한 적정각성수준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SSSII; Zuckerman, Kolin, Price와 Zoob, 1964).

자극추구동기는 다른 심리적 구인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 즉, 자극추구동기가 높은 사람은 외향적이며,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동조적이며 불안수준이 낮다(Zuckerman & Link, 1968). 또한 약물, 음주행동, 범죄 등과 같은 많은 문제

행동들은 자극추구행동(sensation seeking behavior)과 관련되어 있다(White & Labouvie, 1985). 따라서 자극추구행동(sensation seeking behavior)은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중요한 설명적 구인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Zuckerman(1979)은 자극추구행동을 진기하고 복잡한 자극/경험에 대한 욕구이며 그러한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요인분석에 의하여 자극추구행동은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세분된다. 첫번째 요인은 드릴/모험추구행동(Thrill and Adventure Seeking)으로써 스포츠나 스피드와 위험을 내포하는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한다. 두번째 요인은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로써 마음이나 감각, 여행, 비동조적인 생활양식등을 통한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낸다. 세번째 요인은 금지해제(Disinhibition)인데 이는 주연(酒宴), 파티, 성상대를 여러 명 갖고자 하는 것 등을 표현한다. 마지막 요인은 권태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인데, 이는 반복적인 것, 틀에 박힌 일, 우둔한 사람등을 싫어하는 성향과 변화되지 않는 것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등을 나타낸다.

자극추구동기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른 구인을 이용한 비행연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Zuckerman(1979)에 따르면 드릴/모험추구행동은 사회적으로 지향된 형태의 감각추구이지만, 금지해제와 경험추구행동은 사회병리적 형태의 감각추구 행동으로써 비동조성이나 충동성과 강한 연관을 보인다.

Newcomb과 McGee(1991)의 연구는 자극추구동기의 각 하위척도는 모든 유형의 비행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금지해제는 약물사용, 법준수, 성행동, 이탈행동 등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이나 신앙심과는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경험추구는 약물사용과 정적상관을, 법준수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드릴과 모험행동추구는 약물사용과 성행동과 정적상관을, 법준수와 신앙심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태민감성은 약물사용, 성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나 마찬가지로 법준수와는 강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Jaffe와 Archer(1987)의 연구에서도 자극추구동기는 약물남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밝혀져 자극추구와 비행간의 관계의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추구동기는 일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기체계는 아니다. Zuckerman(1974)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극추구행동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드릴과 모험행동과 경험추구행동은 금지해제와 권태민감성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로 Zuckerman, Eysenck와 Eysenck(1978)는 16세~70세 사이의 254명의 남성과 69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극추구동기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6~19세 집단의 자극추구동기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극추구동기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드릴/모험추구행동과 권태민감성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극추구동기의 변화에 대한 연령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은 금지해제에 대해서 18%, 드릴과 모험추구행동에 대해서는 21%, 경험추구행동에 대해서는 5%, 그리고 권태민감성에 대해서는 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극추구행동과 비행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비행을 예측해주는 단일 구인으로서의 자극추구동기의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즉, 자극추구동기가 높으면 비행수준도 높을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자극추구동기의 하위척도가 비행의 하위유형을 얼마나 잘 예측해 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드릴/모험추구행동 그리고 금지해제와 비행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으로서 자극추구동기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자청소년들로 2개 인문계 고교생 및 3개 공업계 주·야간 학생들로서 총 255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6.6세($SD=.99$)였으며, 분포는 15세~19세였다.

도 구

자극추구척도: Zuckerman, Eysenck와 Eysenck (1979)가 제작한 자극추구척도 5판(SSS-V) 40문항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자극추구행동에는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Zuckerman, Eysenck 와 Eysenck, 197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문항 20문항을 추가하여 자극추구척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남자 고교생 461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Zuckerman 등의 원척도는 Yes/No의 강제선택식 응답방법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1점) ~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Axis Factoring)에 의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근(eigenvalue)이 1.0 이 넘는 요인은 6개가 산출되었으나, 원척도에 상응하는 상위 4개 요인만을 추출하였다(부록 1 참조). 예비조사의 목적은 본조사를 위한 간략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상위 5개 문항을 각각의 하위척도의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요인 3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30을 넘는 문항이 단 3문항밖에 되지 않아 요인 3을 구성하는 문항은 3문항만을 포함시켰다. 요인분석결과 모험추구행동과 권태민감성 척도는 원척도와 동일한 차원에서 추출되었으나, 경험추구와 금지해제 차원의 경우 서로 차원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문항내용상 요인의 명칭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요인 1은 “드릴/모험추구행동”, 요인 2는 “경험추구행동” 요인 3은 “금지해제” 요인 4는 “권태 민감성”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한편, 이 4개 요인의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9.6%로서, Zuckerman 등(1978)이 자극추구척도 5판을 개발할 때의 25%에 비해 약간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한 총 18문항을 이용하여 자극추구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험추구행동이 .82, 경험추구행동이 .62, 금지해제가 .83, 권태민감성이 .65 였으며, 전체 1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 이었다.

비행의 측정: 이미경(1995)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비행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숨은비행척도와 청소년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행형태를 고려한 것으로서 12문항의 공격행동과 20개문항의 규칙위반, 11개 문항의 파손행동, 11개 문항의 절도, 3개 문항의 약물남용차원 등 총 57개 문항을 포함한 5개 차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질문한 행동의 빈도를 묻는 것으로 “없다”의 응답은 1점, “많다”의 응답은 5점인 5점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채점은 단순합산 방식이 아닌 각 문항을 표준점수(z-점수)화 하여 비행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공격 행동이 .80, 규칙위반이 .92, 절도가 .88, 파손행동이 .79, 그리고 약물남용이 .66이었으며, 전체 비행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5였다.

결 과

먼저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을 조사하였다(표 1). 그 결과, 자극추구동기의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모든 비행유형간에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자극추구행동의 하위차원들이 비행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금지해제와 권태민감성은 모든 유형의 비행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경험추구는 약물남용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비행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험추구행동은 규칙위반과만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자극추구동기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극추구동기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비행유형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각의 자극추구동기 수준을 하위 25%와 상위 25%를 기준으로 하여 저 집단과 고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비행유형에 대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 결과, 모험추구수준이 높은 집단의 규칙위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t_{141} = -3.72, p < .001$), 다른 4가지 유형의 비행에서는 모험추구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험추구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는 약물남용에서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4가지 하위 유형의 비행에서는 경험추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비행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금지해제와 권태민감성의 수준에 따라서는 모든 유형의 비행에 차이가 있었다. 즉, 금지해제의 수준

표 1. 자극추구동기와 비행간의 상관관계

모험추구	경험추구	금지해제	권태민감	공격행동	규칙위반	절	도	파손행동
모험추구	---							
경험추구	.5008***	---						
금지해제	.1333*	.3482***	---					
권태민감성	.1747**	.4130***	.5160***	---				
공격행동	.0668	.2953***	.4594***	.4185***	---			
규칙위반	.1844**	.4439***	.4937***	.5135***	.7873***	---		
절	.0817	.1706**	.3184***	.3083***	.6570***	.5847***	---	
파손행동	.1195	.3452***	.4623***	.4178***	.7773***	.6767***	.6226***	---
약물남용	-.1003	.0436	.3586***	.1761**	.5810***	.3806***	.5166***	.4645***

* $p < .05$ ** $p < .01$ *** $p < .001$ (2-tailed)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모든 유형의 비행 정도가 높았으며, 권태민감성의 수준이 높은 집단 또한 모든 유형의 비행 정도가 높았다 (표 2참조).

표 2. 자극추구동기 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

	공격행동	규칙위반	절 도	파손행동	약물남용
<u>모험추구</u>					
저집단(66)	-.05(.65)	-.18(.60)	-.03(.75)	-.05(.61)	.15(1.19)
고집단(77)	.08(.50)	.16(.62)	.09(.79)	.14(.60)	.00(.71)
t	n.s	-3.27***	n.s	n.s	n.s
<u>경험추구</u>					
저집단(61)	-.18(.58)	-.40(.38)	-.13(.71)	-.25(.52)	.03(1.14)
고집단(78)	.24(.58)	.36(.67)	.15(.79)	.28(.64)	.13(.86)
t	-4.25***	-7.99***	-2.15*	-5.25***	n.s
<u>금지해제</u>					
저집단(113)	-.18(.37)	-.26(.46)	-.16(.40)	-.20(.50)	-.14(.28)
고집단(67)	.34(.68)	.49(.69)	.37(1.05)	.40(.65)	.40(1.37)
t	-6.66***	-8.63***	-4.84***	-6.97***	-4.05***
<u>권태민감성</u>					
저집단(64)	-.19(.32)	-.33(.40)	-.19(.32)	-.23(.50)	-.14(.22)
고집단(71)	.28(.56)	.44(.64)	.32(.88)	.34(.57)	.16(.95)
t	-5.87***	-8.25***	-4.39***	-6.15***	-2.44*

* $p < .05$ ** $p < .01$ *** $p < .001$

자극추구행동이 비행의 각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3. 비행의 하위유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R	R ²	Adjusted R ²	F
<u>공격행동</u>				
금지해제	.4659	.2171	.2139	67.67***
권태민감성	.5119	.2620	.2559	43.15***
<u>규칙위반</u>				
권태민감성	.5061	.2561	.2531	83.33***
금지해제	.5675	.3220	.3164	57.25***
경험추구	.6042	.3650	.3571	46.00***

<u>절 도</u>				
금지해제	.3207	.1029	.0992	27.87***
권태민감성	.3643	.1327	.1255	18.52***
<u>파손행동</u>				
금지해제	.4623	.2137	.2105	66.59***
권태민감성	.5073	.2574	.2513	42.30***
경험추구	.5246	.2752	.2663	30.76***
<u>약물남용</u>				
금지해제	.3577	.1279	.1244	35.95***
모험추구	.3866	.1494	.1424	21.43***

*** $p < .001$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자극추구행동의 2개 이상의 하위차원들이 각각의 비행유형을 의미있

게 설명하고 있다. 즉, 공격행동을 설명하는 자극추구행동은 금지해제, 권태민감성의 순이었으며, 이 두가지 자극추구행동의 하위척도는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대해 25.6% 가량의 설명력이 있었다($F_{2,243}=43.14, p<.001$). 규칙위반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자극추구행동의 하위척도는 권태민감성, 금지해제, 경험추구의 순이었으며, 이 세가지 하위척도의 규칙위반에 대한 설명량은 35.7%였다($F_{3,240}=46.00, p<.001$). 한편, 절도에 대한 자극추구행동의 설명력은 다른 유형의 설명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를 설명하고 있는 자극추구행동의 하위척도는 금지해제와 권태민감성의 순으로 나타났다($R^2=.1255, F_{2,242}=18.52, p<.001$). 파손행동에 대해서도 금지해제, 권태민감성이 주요한 2개의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험추구행동도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F_{3,243}=30.76, p<.001$). 파손행동에 대해서 이 세가지 변인의 설명량은 약 26.6%였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금지해제와 모험추구가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F_{2,244}=21.43, p<.001$), 이 두가지 변인은 약물남용에 대하여 14.2%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의 하위유형들간의 강한 상관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문제행동이론(Jessor and Jessor, 1977)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문제행동이론에서는 일탈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단일 증후군(syndrome)이 약물남용이나 조숙한 성행동에의 개입, 폭력

적 태도 그리고 기타 다른 일탈행동을 야기시킨다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각각의 하위유형의 비행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이와같은 문제행동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Zuckerman(1979)에 따르면, 드릴과 모험추구행동은 사회적으로 지향된 형태의 감각추구이지만, 금지해제와 경험추구행동은 사회병리적 형태의 감각추구 행동으로써 비동조성과 충동성과 강한 연관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같은 가정을 지지한다. 즉, 드릴과 모험추구행동의 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단지 규칙위반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비행유형 즉, 공격행동이나 파손행동, 절도 그리고 약물남용과 같은 비행유형에 있어서는 드릴과 모험추구행동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설명력이 없었다. 반면, 금지해제와 경험추구행동 수준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행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금지해제와 경험추구행동은 매우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결과는 자극추구동기에 관한 Zuckerman(1979)의 이론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지해제와 권태민감성의 중요성이다. 금지해제와 권태민감성의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은, 그 수준이 낮은 고등학생에 비해 모든 유형의 비행정도가 높았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거의 모든 비행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시기적 특수성을 잘 나타내준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점은 성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고, 그것을 훌륭히 수행해 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달단계이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새롭고 다양한 행동을 실험적으로 수행해 보려고 한다. 특히 금지해제 수준

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그 연령단계는 금기시되는 행동이지만 성인이 되는 지표로 여겨지는 행동을 앞당겨 하는 성향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적 수행은 전통적인 사회와 마찰을 일으켜 문제행동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행하는 비행이란 비록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모르지만, 성인이 행하는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Stattin과 Magnusson(1991)의 연구가 시사하듯, 청소년기의 비행은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행동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을 처벌하게 되면, 그 청소년은 자포자기에 빠져 비행에 탐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이미경(1995)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미경(1995)은 공격 및 파손행동, 절도, 약물남용 등에 대하여 학력수준이 억제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하여 일벌백계주의를 적용하지 말고, 심리학적 변인을 고려한 보다 고차원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권태민감성이 청소년 비행에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문화도 점차 감각적, 찰나적, 소비지향적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문화를 아무런 여과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은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X세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Zuckerman(1979)에 따르면 자극추구동기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행동으로 대치가능한 동기이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만 말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자극추구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제

공하여, 청소년들의 자극추구동기가 일탈행위를 초래하는 위협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일회적 조사연구라는 특성 때문에 그 인과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을뿐더러, 청소년기라는 특수한 시기가 갖는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 또한 다른 제 3의 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그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알려진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극추구동기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자극추구동기척도의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Zuckerman(1979)의 척도에 충실한 것이지만, 우리의 실정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권이 미국보다는 일본과 더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Ohkubo(1972)의 연구는 한국판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척도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했을 때, 그 상관은 미국과 영국은 .67이었으나, 미국과 일본은 .35로 낮게 나타났다. 즉, 자극추구동기에는 문화차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문항으로 자극추구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자극추구동기 변화의 맥락에서 비행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자극추구동기의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이미경(1995). 충동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Blumstein, A., & Cohen, J. (1987).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237, 985-991.
- Donovan, J. E., & Jessor, R. (1977).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90-904.
- Jaffe, L. T., & Archer, R. P. (1987). The prediction of drug use among college students from MMPI, MCMI, and sensation seeking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1, 243-253.
- Jessor, R., & Jessor, S. L.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offi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Newcomb, M. D., & McGee, L. (1991).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on general deviance and specific problem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614-628.
- Ohkubo, Y. (1972). *Application of the sensation-seeking scale to Japanes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36th annual convention of the Japanese Psychological Association, Osaka, Japan, August, 1972.
- Patterson, Debarshey, &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Stattin, H., & Magnusson, D. (1991). Stability and change in criminal behavior up to age 30,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1(4), 327-346.
- White, H. R., Labouvie, E. W., & Bates, M. 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197-211.
- Wundt, W. M. (1873). *Grundzu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 Leipzig, German Democratic Republic: Engelman.
- Zuckerman, M. (1974). The sensation-seeking motive. In B.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7). New York: Academic Press.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Zuckerman, M., & Link, K. (1968). Construct validity for the sensation-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20-426.
- Zuckerman, M., Eysenck, S., & Eysenc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 139-149.
- Zuckerman, M., Kolinm, E. A., Price, L., & Zoob, I. (1964). Development of a sensation-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 447-482.

부록 1. 자극추구행동의 요인구조

Thrill and Adventure Seeking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목숨을 걸고 등산을 해보고 싶다.	.40338	.24644	-.00166	-.11230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위험한 일을 해보고 싶다.	.15623	<u>.49928</u>	.14447	.05350
수상스키와 같은 짜릿한 스포츠를 해보고 싶다.	<u>.81662</u>	.01039	.03258	.05157
바닷가에서 서핑보드를 타보고 싶다.	<u>.69221</u>	-.01358	.07449	-.00224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고 싶다.	.51141	.14362	-.06015	.01433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 바다 속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u>.68169</u>	.08356	.00649	.00571
낙하산 점프를 해보고 싶다.	<u>.82928</u>	.11987	.03264	.07320
10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해보고 싶다.	<u>.69502</u>	.13964	.01956	.03773
조각배로 먼 바다를 항해해 보고싶다.	.42805	.07530	.00436	-.02559
높은 산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빠르게 내려와보고 싶다	.66551	.10484	.08073	.00717
놀이동산에 가면 아찔한 놀이기구들을 즐겨탄다.	.44831	.02566	.08786	.09696
비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전속력으로 질주해보고 싶다.	.41073	.31291	.06827	.11280
기회가 온다면 정글탐험을 해보고 싶다.	.49580	.28583	-.04572	.00591
큰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싶다.	.24212	.34512	.23560	.02352
공포영화나 모험영화를 좋아한다.	.31973	.26253	.11895	-.03490

Experience Seeking

향수 등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인마다 독특한 냄새를 좋아한다.	.05587	.15897	.03871	.01664
길을잃는한이 있어도, 낯선도시나 도심지를 혼자서 돌아다녀보고 싶다.	.20474	<u>.65819</u>	.01693	.10142
기회가 된다면 마리화나를 피워보고싶다.	.04254	.08757	<u>.84552</u>	.03244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을 해보고 싶다.	.03573	.11721	<u>.81958</u>	.11149
전에 맛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다.	.32347	.03171	.02081	.07546
계획도 하지 않고, 일정한 노정이나 일정 없이 여행을 하고 싶다.	.29348	.36704	.00650	.13077
히피족과 같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집단의 사람들과 사귀어보고 싶다.	.12269	.37003	.10311	.05027
Aids환자나 동성애자를 만나보고 싶다.	.07056	.10552	.07529	-.02231
현대미술의 불규칙한 형태와, 조화되어 보이지 않는 색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한다.	.13761	.07088	.02113	-.07492
사람들은 때때로 조금은 이상해보일지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19278	.03362	.04725	.13157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Recode)	.02266	-.04452	-.1400	-.21249
역사적으로 혼란의 격동기에 살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12843	<u>.44098</u>	.08183	.03500
색다르거나 더 좋은 품질이기를 기대하며 처음보는 상표의 물건을 사곤한다.	.19076	.20675	-.00992	.17832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05622	.15329	.01401	-.12268
비록 감정이 상하더라도 열띤 토론을 즐긴다.	.04196	.08133	-.04015	.04992

Disinhibition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홀륭한 파티는 격식을 차리지않고 마음대로 웃고 떠들수 있어야 한다.	.17543	.17796	.03925	.10624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지내기를 좋아한다.	.07969	.13801	.31257	.03076
때때로 술이나 대마초 등으로 기분이 황홀해지고 싶다.	.05747	.12608	<u>.67385</u>	.17356
비일상적이거나 불법적일지라도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해보고싶다.	.14662	<u>.39242</u>	.27728	.10650
성적으로 흥분시킬 줄 아는 이성과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11171	.21141	.10707	.15375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파티의 관건이다.	.18745	.10711	.15707	.05357
사람은 결혼전에 적당한 성경험을 해야 한다.	.08307	.08588	.06444	.18545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려 세계각지를 돌아다니며 쾌락을 추구하고싶다.	.24976	.26811	.11565	.01900
영화에서 야한 장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09686	.09580	.06779	.13732
기분 좋게 술에 취하는 것을 즐긴다.	.05262	.22615	.28607	.08133
성에 관련된 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Recode)	.02895	-.08978	-.0428	.01967
혼외정사는 가능한 일이다.	.07895	.08608	.18957	.15207
우리가 즐길만한 것은 대부분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다.	-.01614	.17547	.01099	.14684
여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	-.00532	.14569	.02656	.19094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것은 우리가 버려야할 악습이다.	.03843	.05953	.16707	.13815

Boredom Susceptibility

전에 본 적이 있는 영화는 다시 보기 싫다	.07273	-.09324	.08357	.16382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 따분함을 느낀다.	.12483	.15902	.01178	<u>.44032</u>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면,	.03846	-.02362	.04862	.13238
그 사람은 지루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무슨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는 영화나 연극을 싫어한다.	.10782	.03174	.03112	<u>.38495</u>
누군가가 자기 집을 찍은 비디오나,	-.03116	.03747	.00843	.35227
여행 중 찍은 슬라이드를 보는 것은 끔찍하게 싫다.				
예측 가능한 친구보다 예측 불가능한 친구가 더 좋다.	.19003	.32235	.15450	.12889
잠시라도 집 근처에 있어야 한다면 매우 불안하다.	.04833	.07743	.15305	.18272
따분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이다.	.08750	.02712	.09671	.10965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 지라도, 날카롭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 좋다.	.12968	.15985	.10206	.07722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는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04684	.03033	.17115	<u>.39203</u>
처음에 흥미로웠던 일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쉬 흥미를 잃어버린다.	-.06486	-.00961	.05635	<u>.58494</u>
나는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01302	.10152	.06315	<u>.66437</u>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01643	<u>.38809</u>	.21623	.30423
오랜시간동안 지루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낼수 있다.	-.17321	-.07276	.12618	.19930
(Recode)				
우둔하고,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싫다.	.14717	.04895	.08448	.36994

※ 각각의 차원은 원척도상의 분류, 각 차원의 상위 10개 문항은 원문항, 하위 5개문항은 추가문항

The Impact of Sensation Seeking Motivation on Javenile Delinquency

Yoonchang Park · Mee Kyung Lee · Gene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motivation on juvenile delinquency of male-adolescents. A preliminary survey was performed to construct sensation seeking scale which fits to korean cul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incipal axis factoring, we designed 18-items short form of korean sensation seeking scale(KSSS). In the main research, subjects were 255 male high-school students whose average age was 16.6. All subjects answerd to KSSS and delinquency scale. Among the subscales of KSSS, experience seeking, disinhibition, and boredom susceptibility, except thrill and adventure seeking behavior, correlated with all kinds of delinquenc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show that these 3 subscale of KSSS account for the juvenile delinquency significantly. In that point, the importance of sensation seeking behavior as a construct which influence juvenile delinquency was discussed.